

디지털 금융혁신 이끄는 NH... 4차혁명 '최전선'에

NH디지털혁신캠퍼스 출범

디지털R&D·핀테크혁신센터 구성 2080㎡ 규모로 금융권서 가장 커 핀테크 기업에 상생협력 증서 전달 농협금융그룹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금융권 최대 규모의 디지털센터가 문을 열었다.

NH농협은행은 8일 서울 서초구에서 디지털 연구개발(R&D)과 핀테크육성을 담당하는 NH디지털혁신캠퍼스(이하 혁신캠퍼스)의 출범식을 가졌다. 디지털캠퍼스는 농협은행은 물론 NH농협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동시에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공간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근 금융혁신 관련 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는 최중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농협은 1차 산업인 농업 기반의 금융에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최전방에서 금융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혁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열린 'NH디지털혁신캠퍼스 출범식'에 참석해 다기능 스마트 ATM기기를 이용해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이대훈 행장의 디지털 혁신

혁신캠퍼스는 디지털R&D센터와 NH핀테크혁신센터로 구성된다. 2080㎡ 규모로 금융권에서는 가장 크다.

디지털 R&D센터는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의 역량을 더욱 키울 계획이다. 오픈 API는 농협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구축해 경쟁사와 2년 이상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

와 함께 인공지능(AI)·블록체인·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모델도 발굴한다.

NH핀테크혁신센터는 농협은행이 설립해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 지원 센터를 확대 이전한 것으로 스타트업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농협 특화형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NH디지털 챌린지+'를 통

해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1기로 선정된 기업 수는 33개로 금융권 최다 수준이며, 이달 조성된 200억원 규모의 디지털 혁신펀드에서 최우선 투자대상으로 검토하는 등 앞으로 실질적인 성장지원을 받게 된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이날 행사에서 핀테크 기업 대표들에게 블록체인 기반 상생협력 증서를 전달했다. 앞으로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 금융을 함께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 혁신캠퍼스, 농협금융 디지털 콘트롤타워로

혁신캠퍼스는 농협금융그룹 차원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도 한다.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디지털 금융 그룹으로의 체질 개선을 강조해 왔다. 일부 업무에 디지털을 접목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역량 결집을 통해 고객접점·내부업무·조직문화를 포함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협금융은 전 계열사에 걸쳐 혁신캠퍼스를 중심으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

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하고, 내부 비즈니스프로세스도 AI 기반의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챗봇 확대적용 등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혁신캠퍼스를 시작으로 디지털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스마트데스크·클라우드·AI 기반의 스마트오피스 및 애자일조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협금융은 디지털 전문가 확보를 위해 올해 신규직원 채용전형부터 디지털 마인드와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검증방안을 적용한다. 채용직군과 상관없이 신규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수준의 정보기술(IT)·디지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2020년도까지 10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혁신캠퍼스가 미래 금융생태계의 중심이자 농협금융 디지털전환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며 "입주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LS 펀드상품 가입하면 사은품 증정

KB국민은행

'ELS 펀드랑 예뻐저봄~' 이벤트

KB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추가연계증권(ELS) 펀드상품 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ELS 펀드랑 예뻐저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ELS 펀드는 기초자산 지수를 추종하는 ELS에 분산 투자해 장기 고수익을 추구한다. 기존 ELS 투자의 제한 사항을 줄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 ELS 인덱스', '한국투자 ELS 지수연계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상품을 10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거나 10만원 이상 신규 및 자동이체 약정을 1년 이상 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전자 프라엘 더마 LED마스크, 위닉스 공기청정기, 신세계상품권 등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더욱 폭넓게 실천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우리카드, 해외직구족 겨냥 타임딜 이벤트

우리카드는 '해외직구족'을 위한 타임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우리카드 비자(VISA), 마스터(MASTER) 고객을 대상으로 9월 9일까지 연일 선착순 진행된다.

우리카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우리카드로 몰테일 배송비를 결제하는 선착순 50명에 5달러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비타트라(미국·독일), 테일리스트에서는 제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지 통화 기준 미화 50달러, 50유로 이상 결제 시 각각 5달러, 5유로 즉시 할인이 제공된다.

일별 선착순 인원에 들지 못했더라도



매일 초기화되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단, 이벤트 시작 시간과 대상 인원은 사이트 별로 상이하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9월 초까지 매일 진행되는 이벤트이므로 해외직구족이라면 알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테일리스트, 비타트라(미국)는 우리카드 해외직구물을 이용했을 때 5% 할인이 추가돼 더 똑똑하고 알뜰한 쇼핑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IBK기업은행, 혁신보유 '엘로스토토리'에 120억 투자

IBK-BNW 기술금융 2018 펀드 네 번째 투자기업 선정·투자완료

IBK기업은행은 8일 'IBK-BNW 기술금융 2018 펀드'의 네 번째 투자기업으로 엘로스토토리를 선정하고 투자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엘로스토토리는 플랫폼을 통해 마케팅을 원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과 SNS에서 전파력이 큰 인플루언서를 연결하고, 마케팅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



링, 보고서 등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투자금액은 120억원이며, 투자대상 회사의 현 경영진이 일부 금액을 공동 투자해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경영자매수(MBO, Management Buy-out) 방식의 투자 형태로 이뤄진다.

/나유리 기자 yu115@

신한은행, 신규창업 中 小 CMS 수수료 면제

'신한 인사이드뱅크 ERP' 설치비 6개월 수수료 32만3000원 지원

신한은행은 신규 창업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자금관리시스템(CMS)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창업 6개월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신한 인사이드뱅크 전사적자원관리(ERP)'의 설치비 10만원과 6개월 사용수수료 32만3000원을 면제해 준다.

'신한 인사이드뱅크 ERP'는 사내 자체 ERP 시스템이 없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 아이클라우드의 '얼마에 ERP'와 신한은행의 중소기업용 CMS인 '인사이드뱅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신한 인사이드뱅크 ERP'의 설치비 10만원과 6개월 사용수수료 32만 3천원 전



액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 인사이드뱅크 ERP'의 무료 사용을 원하는 신규 창업기업은 영업점에서 기업 인터넷뱅킹 가입 후 기업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와 전용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무료 사용 후 유료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창업 초기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원 및 자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내 차 중고시세는? 조회 서비스 오픈

삼성카드는 차량의 중고시세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내 차 시세 조회'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내 차 시세 조회 서비스는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중고시세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주행거리에 따른 중고시세, 중고차 시장에서 본인 차량의 인기도, 3년 후까지의 예상 가격 등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내 차 시세 조회는 삼성카드 모바일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다 이렉트 오토 모바일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민영 기자